

농학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남염법의 변천

김 순 영[†]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The Transition of the Indigo Dyeing Method Identified through the Agricultural Archives in the Latter Joseon Dynasty

Soon-Young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8. 4. 28. 접수)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examine the indigo dyeing technique in the latter Joseon Dynasty, and to find diachronic specifics in the indigo dyeing method from 17C to 19C.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2 kinds of indigo species-Yoram(Polygonum tinctorium Lour.) and Sungram(Isatis tinctoria L.)-in the latter Joseon Dynasty. Dangram was preferred in particular among Yoram species because of its high dyeing efficiency. Sungram was mainly used for making Jeon(indigo sediment). Second, Yoram cultivation took the following order: Sowing in April→planting out in June→harvesting leaves in August →collecting seeds in September. Sungram had more harvesting times and wider harvesting period than Yoram. Third, all indigo dyeing methods were grouped into two categories, one was temporary dyeing method, the other was permanent dyeing method. Mixture dyeing of the boiled and the raw, raw leaves dyeing, and fermentation dyeing belonged to the temporary dyeing. Jeon dyeing and Gaeogi dyeing belonged to the permanent dyeing. Finally, diachronic specifics from 17C to 19C were as follows: Decline in the mixture dyeing of the boiled and the raw, development in the raw leaves dyeing, continuance of the fermentation dyeing, and naturalization of Jeon dyeing technique.

Key words: Indigo dyeing, Yoram, Sungram; 남염, 요람, 숭람

I. 서 론

최근 전통문화의 부가가치와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통염색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 가운데 특히 인디고 색소를 함유한 쪽풀을 이용하여 푸른색을 물들이는 남염 기술은 아름다운 빛깔 뿐 아니라 항균, 방충 등의 기능으로 인하여 사용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남염은 현재 나주의 윤병운, 정관채 두 분의 인간문화재(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

115호 염색장)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여러 장인과 연구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이들은 명맥이 끊어진 남염 기술을 복원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은 그 기술을 되살려 교육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의 이러한 남염 기술이 어떤 변화를 거쳐 오늘의 방식으로 정착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남염 기술의 근원이 어디이며 어떤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가 드러날 때 기술의 전통성과 정체성이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문헌에 기록된 염색법과 이의 시연과정 소개가 주를 이룬 기존 전통염색법에 관한 연구들과 달리, 통시적 변천특성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Corresponding author
E-mail: ksyo3@chol.com

두어 남염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선후기(17~19세기)에 편찬된 농학서에 등장하는 남염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 조선후기의 남염법을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다시 조선후기 남염법의 변천특성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적 연구로서, 연구의 대상은 『閑情錄』(許筠, 1610~17/1984), 『稽經』(朴世堂, 1676/2001), 『山林經濟』(洪萬選, 1700년경/1982), 『增補山林經濟』(柳重臨, 1766/2003), 『海東農書』(徐浩修, 1798~99/1981), 『규합총서』(憑虛閣李氏, 1809/1975), 『林園經濟志』(徐有集, 1842~45/1983), 『竹橋便覽』(韓錫敷, 1849), 『五洲衍文長箋散稿』(李圭景, 순조~철종연간/1959) 등이다. 이들은 조선후기에 편찬된 농학서 가운데 남재배와 남염법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 문헌으로서 그 내용이 주제적이고 비교적 상세하여 조선후기의 실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다. 그 외에 중국의 농학서로 『齊民要術』(賈思勰, 530~50/2006), 『農桑輯要』(元世祖勅司農司, 1273/1985), 『二如亭群芳譜』(1621/2001), 『天工開物』(宋應星, 1637/1997) 등을 참고자료로 비교하였다.

II. 남의 품종과 재배법

1. 남의 품종

1) 요람(蓼藍, 쑥)

일반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의 삼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풍토와 기후 환경에서는 요람이 잘 재배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조선의 농학서 기록에 의하면 이 요람의 품종이 단일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규합총서』(빙허각 이씨, 1809/1975)에는 ‘쪽잎이 등글고 두틀두틀한 것이 당종호품이고 얇고 귀난 것은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 조선후기에 쪽잎의 모양에 따라 두 종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의 농학서인 『산가요록』(전순의, 1459년경/2004)에도 ‘아청색을 염색하는데 당람을 채취한다(染鵝青色 唐藍棘盛時採取)’는 기록이 있어 당람이 이미 조선전기부터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동농서』(서호수, 1798~99/1981)에는 ‘요람의 잎이 여뀌와 유사하다... 벽을 염색하고 전을 만들지 못 한다. 씨는 약으로 쓴다(蓼藍葉似蓼... 可以染碧不堪作靛 收子入藥)’고 되어 있다. 여기서의 요람은 여뀌처럼 잎이 길고 끝이 뾰족한 것으로, 염색성이 우수하지 못하여 짙은 푸른색을 염색하기 어려우며 아울러

전(靛)을 만들기에 적절하지 못한 품종임을 말하고 있다.

19세기 일본의 농업기술을 조선에 소개한 『농정신편』(안종수, 1881/2002)에서도 당람과 요람(당람이 아닌, 여뀌와 같이 길고 뾰족한 잎을 가진 품종)의 존재가 확인된다. 『농정신편』에 ‘당람은 잎이 타원형이고 줄기가 붉은 것이고, 환람은 잎이 등글고 잎줄기가 담홍색인 것, 요람은 잎이 긴 것이다. 당람과 환람은 상등품이나 요람은 염색이 아주 좋지 않다(基橢圓而莖赤者謂之唐藍 葉圓而葉莖淡紅者謂之丸藍 基葉長者謂之蓼藍 而唐藍丸藍能作上品 蓼藍染色甚惡)’라고 되어있다. 여기서의 당람과 환람이 바로 『규합총서』에서 말한 ‘쪽잎이 등근 당종호품’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으로 추정되며, 요람은 염색성이 우수하지 못한 『해동농서』의 요람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경기도, 충청도, 강원도』(농상무성, 1906)에서는 한국에 재배되고 있는 요람에 대해 ‘모두 환엽종(丸葉種)으로 분지력이 약한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새로운 한국식물도감 I』(이영노, 2006)에는 마디풀과(여뀌과)의 쪽(즉 요람, *Polygonum tinctorium* Lour.)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흰 꽃을 피우는 품종과 붉은 꽃을 피우는 품종의 사진이 구별되어 나와 있다. 현재 재배되는 요람의 품종은 일반적으로 잎이 길고 끝이 뾰족한 왜쪽과 잎이 작고 등근 토종쪽으로 구분된다. 왜쪽은 1970년대 후반 예용해 씨에 의해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며, 토종쪽은 1980년대 초반 식물학자인 고(故) 이천복 박사가 경기도 일대에서 자생쪽 식물체를 발견, 이를 이병찬 씨가 번식시켜 널리 퍼지게 된 것이라 한다(이병찬 씨 구술, 2008년 3월).

이상에서 조선후기에 염색용으로는 잎이 등글고 두터운 요람의 품종, 즉 당람이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00년 초반까지도 재배되고 있었고, 현재 토종쪽이라 불리우는 품종으로 명맥이 이어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송람(菘藍, 청тир, 靑黛, 大青)

『해동농서』(서호수, 1798~99/1981)에는 요람과 함께 송람의 기록이 등장하는데, ‘송람은 잎이 배추와 유사하고 보통 청대라 부른다. 전을 만들 수 있고 아청색을 염색한다(菘藍葉似白菜俗呼爲青黛者是也 可作靛染鵝青色)’고 되어 있다. 이 기록은 송람이 전을 만들어 짙은 푸른색을 염색하는데 요람(당람이 아닌, 잎이 길고 끝이 뾰족한 요람 품종)보다 더 많이 사용

된 종이었음을 알게 해 준다.

『오주연문장전신고』(이규경, 순조~철종연간/1959)에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청대만 있다. 즉 청람의 방명인데 중원에서는 숭람이라 칭한다. 그 뿌리는 소나무 뿌리와 유사하고 그 줄기의 굽음은 우리나라 북벽의 배추 줄기와 같다(今我東只有青黛 即青蘆之方名 是中原耽稱菘藍 其根似松根 其梗宛如我北閑菘菜梗也)’라고 되어 있어, 19세기 조선에서 숭람이 주로 재배되었으며, 이를 조선에서는 ‘청대’ 혹은 ‘청람’이라고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산림경제』(홍만선, 1700년경/1982)에는 남(藍, 족)과 전(靛, 청덕)의 재배법이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청덕가가 바로 숭람이며, 『죽교편람』(한석효, 1849)에 나와 있는 청람 역시 숭람으로 판단된다. 『시험장각종목록』(최경석, 1884년경)에도 염류(染類)로서 남과 청대가 구분되어 있는데, 곧 요람과 숭람의 구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경상도, 전라도』(농상무성, 1906)의 염료류 남의 기록에는 ‘기타로 한국에는 숭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염료로 사용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되어 있고, 같은 책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편에서는 숭람에 대해 한국어로 ‘청대’ 혹은 ‘대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잎이 배추와 유사한 남으로는 배추와 함께 십자화과(거자과)에 속하는 대청속의 식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새로운 한국식물도감 I』(이영노, 2006)에는 십자화과의 대청속(*Isatis Linne*)이 소개되어 있는데, 유럽, 북아프리카, 아시아에 약 20~30종, 우리나라에는 1종이 분포하며, 1년초 또는 2년초라고 되어 있다. 그 중 한국의 대청(*Isatis tinctoria L.*)은 키 30~70cm의 2년초로 함남 원산 이북, 우수리에 분포한다고 되어 있다. 『해동농서』 등에 기록된 숭남은 북한에 자생하는 대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으로 짐작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숭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김지희(1997)의 연구에는 한택식물원에서 제공받은 대청의 사진이 있다. 연구자가 한택식물원에 문의해 본 결과, 희귀식물로 관리하지 않아서 현재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택식물원 소재의 대청은 고(故) 이천복 박사가 1980년대 중반 씨앗을 구해와 번식시킨 것인데 씨앗의 유입경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이병찬 씨 구술, 2008년 3월).

이상에서 조선후기에 당람과 더불어 대청속의 일종인 숭람이 주로 재배되었고, 이 숭람은 1900년 초반까지도 재배되고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멸종위기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 남의 재배법

I) 요람(藍, 족)의 재배법

조선후기 농학서에 기록된 요람의 재배법을 정리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색경』,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 『해동농서』에서 조선후기 요람(藍, 족)의 재배법을 종합해 볼 때, 음력 3월 파종→5월 정식→7월 수확, 남즙 만들기 →8월 채종의 순임을 알 수 있다. 나주 윤병운 씨의 쪽 재배법을 보면(박정상, 1998), 음력 3월 파종→5월 정식 →7월 수확의 순으로, 오늘날도 조선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재배환경에 따라서 남 수확을 1회 이상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임원경제지』와 『농정신편』에서 확인된다. 『임원경제지』에서는 명의 농학서인 『군방보』를 인용하면서 음력 3월 파종→5월 1차 수확→6월 2차 수확→7월 3차 수확→8월 채종을 기록하고 있다. 이 내용은 한반도의 기후조건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음력 5월에서 7월까지 한여름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남을 벨 수 있을 만큼 생육이 활발한 온난한 기후조건에 해당하는 재배법으로 보인다. 에도시기 일본의 농업서인 『화한삼재도회』를 인용한 내용에서도 음력 3월 파종→4월 정식의 순으로 되어 있어 모종을 옮기는 시기가 1개월 빠르다. 19세기 일본의 사정을 기록한 『농정신편』에서는 음력 1~2월 파종→3월 정식→5월 1차 수확→6월 2차 수확으로 되어 있어 역시 온난한 지역의 파종과 수확이 이른 것으로 나와 있다.

현재 남부지방과 중부지방 요람의 재배법을 살펴보면, 재배지의 기후조건과 수확량의 최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2000) 자료에 의하면, 1모작의 경우, 양력 3월 상순 파종→5월 상순 정식→7월 하순 수확 최적기(6월 하순 1차 수확→8월 중순 2차 수확)로 조선후기 농학서의 기록보다 1개월 정도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는 한반도의 기후가운데 가장 온난한 남부지역의 기후특성과 수확량의 최대화를 고려하여 정해진 기준으로 보여 진다. 중부지방인 과천에서는 양력 3월 중순 파종→5월 상순 정식→7월 하순~8월 상순 1차 수확→9월 중순 2차 수확을 한다고 하여(김성동 씨 구술, 2008년 3월) 남부지방보다 수확시기가 1개월 정도 늦는데, 이는 남부지방에서 2모작으로 요람 농사를 지을 경우의 수확시기와 비슷하다.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경기도, 충청도, 강원도』(농상무성, 1906)에

<표 1> 요람의 재배법

출 처	「목경」 (1676)	「증보설립경제」 (1766)	「해동농서」 (1798-99)	「일원경제지」 (1802-45)	「농정신법」 (1881)	남부지방	중·부지방
인용서	「산림경제」 (1700년경) 「신은지」 (1378-1448)	「산림경제」 (1700년경) 「신은지」 (1424-83)	「신은지」 (1700년경) 「신은지」 (1424-83)	「증보설립경제」 (유증립) (1766)	「군방보」 (1651)	「회한설제도회」 (1715)	설성동자구술 (2008)
재료명	蠶(죽)	蠶(죽)	蠶(죽)	蠶(죽)	蠶	蠶	요법
음력 3월 이전	서를 물어 칠지 후 썩이나면 두둑에 파종. 썩례질. 양 세발. 덮어증. 아 침마다 물주고 약 이 나오면 약재발 사박과 밤에 물주 기. 김매기.	유구나멀어질 때 (양력 3월에 개화) 심음.	소람은 천년 가을, 12월, 3월에 각각 땅을 한번씩 갈기.	파종. 썩례질. 양 세발. 덮어증. 아 침마다 물주고 약 이 나면 약재발 걸음.	파종. 썩례질. 양 세발. 덮어증. 아 침마다 물주고 약 이 나면 약재발 걸음.	3월 파종 3월 파종 (4월 중순 파종)	3월 중순 파종 3월 중순 파종
음력 3월							
음력 4월	5월 중, 습기 있을 때 정식. 3줄기를 1포기로 접한 후미질.	4차쯤 자라면 5차 간격으로 정식. 물주기. 거름주기. 기谶 심음. 흐미질.	5월 망종 습기 있 을 때 냉을 뿐이 한 구덩이에 3줄 기谶 심음. 흐미질.	5월에 수확 5월 1차 수확 5월 1차 수확 5월 1차 수확	4~5차 차라리면 5 차마다 한 포기씩 정식. 물주기.	5월 초순 1차 수 확 6월 초순 1차 수 확 6월 초순 1차 수 확 6월 초순 1차 수 확	4월 중순 묘리배 기. 썩례로 모리그루를 걸어 서 쭈 빠리를 놓고 풀을 줌. 약즙을 뿌 리고 김 매고 별 레 죽임.
음력 5월							
음력 6월	남수 편풀기*	남수 흙하고 열매 훱기 기다림.		동참심기	남은 뿌리는 차라 기를 기다려 2차 수확	남은 뿌리는 7월 에 3차 수확	7월 하순 수확 7월 하순~ 8월 수확
음력 7월	채종*	채종. 이듬해 봄 에 심음.				채 종. 이듬해 3월 에 심음.	(8월 상순 1차 수확) (9월 상순 1차 수확) (9월 하순 2차 수확)
음력 8월							
음력 9월 이후	내용이 제민요술, 농상집요, 신은지, 蠶과 유사, * 신은지의 기록임.						10월 중순~ 11월 상순 체종 이듬해 3월 체종
비 고							죽은지역에서는 이듬해 놀이 녹은 내에 유제 사어에 죽을 심음. 앞을 한 번 빼려면 반드시 5월 하순이 되어야 함. 만약 떠를 살으 려면 다시 2번 꽂 을 때기는 어려움.

서는 요람의 수확에 대해 '7~8월 사이에 두 번 거둔다'고 되어 있어 100년 전과 오늘날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숭람(靛, 청덕)의 재배법

조선후기 농학서에 기록된 숭람의 재배법을 정리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색경』,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에서 숭람(靛, 청덕)의 재배법을 종합해 볼 때, 음력 3월 파종→5월 1차 수확, 두전 제조→8월 2차 수확, 이전 제조→8월 이후 3차 수확, 삼전 제조 가능한 순임을 알 수 있다. 요람과 숭람은 파종시기가 비슷하나 요람에 비해 숭람은 베는 시기가 빨랐으며 일반적으로 두 번 혹은 세 번까지도 베어 전 제조에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에는 복전을 심는 일이 많았는데 이는 보리와 숭람의 이모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력 3월에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를 수확한 후 즉, 음력 4~5월 이후에 보리 거둔 자리에 바로 파종하는 것으로 땅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이다.

한편, 『임원경제지』 숭람 부분에서 인용된 『군방보』 대람의 재배법은 『신은지』 남의 재배법과 상당히 유사하며 음력 7월의 1회 수확만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경기도, 충청도, 강원도」(농상무성, 1906)에서도 숭람에 대해 양력 4월에 파종하고 7월에 거둔다고 하여 1회 수확만을 기록하고 있다. 숭람이 요람에 비해 수확시기가 약간 이르고 수확 횟수가 더 많은 경향이지만, 재배환경에 따라 요람처럼 여름에 1회 수확하기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III. 조선후기의 남염법

1. 한시적 남염법

한시적 남염법이란 남의 생육이 활발한 여름 전후의 시기에 염색이 한정되는 것으로 남엽을 수확하여 바로 염색에 이용하는 법을 말한다. 『색경』,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 『해동농서』, 『규합총서』, 『임원경제지』, 『죽교편람』 등에 기록된 남염법을 <표 3>에 정리하였다.

I) 숙람과 생람의 혼합염법

『색경』,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에는 숙람과 생람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남염법(이하 혼합염법이라 명명)이 소개되어 있다(<표 3>). 혼합염법은 남엽과 물을

1:1의 비율로 섞어 익힌 후 찌꺼기를 걸려낸 숙람즙과 생람을 다시 3:1의 비율로 섞어 염색하는 것이다.

박정상(1998)은 오늘날 유구(오키나와)지역의 남염 가열염색을 소개하면서 여기서도 70°C 이상으로 온도를 올리지 않는데 이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인디루빈(indirubine, indigo red)이 생성되어 자색으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마도 조선후기의 숙람도 고온으로 익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생엽염법

『해동농서』, 『규합총서』, 『임원경제지』, 『죽교편람』에는 생엽염법이 소개되어 있다(<표 3>). 생엽염법은 쪽잎을 찧거나 같은 후 얼음물을 추가하여 저온 염색하는 방법이다. 『규합총서』에 의하면 생엽염법을 통해 얻은 색은 남색과 옥색이었다. 남색의 경우, 물을 타서 염액의 농도를 낮추어 염색한 경우에는 연남, 물을 타지 않고 쪽즙에 그대로 염색한 경우에는 짙은 남이라 명명했다. 남색을 들인 끝에 지나치게 푸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옥색을 들이기도 했다. 생엽염법은 주로 명주와 비단과 같은 동물성 섬유에 이용한 염색법이었다.

3) 남즙의 잣물 발효염법

『규합총서』의 반물과 『임원경제지』의 아청색이 바로 남즙의 잣물 발효염법(이하 잣물 발효염법이라 명명)을 통해 얻은 색이었다(<표 3>). 잣물 발효염법은 쪽잎을 일정시간동안(하루에서 며칠) 물에 담가 남색소를 추출한 후, 이 남즙에 미리 만들어둔 잣물(명아주나 쪽잣물)을 넣고 교반한 후 적절히 발효되기를 기다렸다가 염색하는 방법이다.

조경래(2007)는 생잎염색의 경우 피염물과 인독실 사이의 이온결합에 의해 염색이 이루어지므로 염료간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염색을 하더라도 색이 크게 진해지지 않으며, 이온결합을 할 수 있는 작용기가 없는 셀룰로오스계 섬유는 염색 할 수 없다고 했다. 아마도 이러한 생엽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잣물 발효염법이 개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경기도, 충청도, 강원도』(농상무성, 1906)에도 잣물 발효염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람의 설명에서 '요람을 항아리 속의 물에 담가둔 것을 보았다. 3~4일 후에 줄기와 잎을 제거하고 그 액체로 염색하려 한다'고 되어 있고, 숭람의 설명에서 '7월경에 거두어서 잎을 다져서 물에 담그고 교

<표 2> 송활의 재배법

출처	『학경』 (1676)	『증보산림경제』 (1766) 『임원경제지』 (1842-45) 『증보산림경제』 (1842-45)	『해동농서』 (1798-99) 『임원경제지』 (1842-45)	『한국도시농산조사』 보고 경기도, 충청도 경기도 (1906)
인용처	『신립경제』 (1700년경) 『한정록』 (1610~17) 『임원경제지』 (1842-45) 『면도찬』 (1544)	『산림경제』 (1700년경) 『한정록』 (1610~17) 『임원경제지』 (1842-45) 『한정록』 (1610~17)	『식생경제』 (1700년경) 『한정록』 (1610~17) 『임원경제지』 (1842-45) 『한정록』 (1610~17)	『제민요술』 (530~50) 『고방보』 (662)
재료명	栎(청득)	栎(청득), 檜藍	栎(청득), 檜藍	松藍(청다, 大藍)
전년	땅갈기*	1월 중 포대에 씨를 뿌려 물에 침시	3번 발갈기	유구가 떨어질 때 남을 심음.
음력 3월 이전	땅갈기	땅갈기*	3월 중에 씨를 물에 침시 후 쇠이 나면 파종. 물 주기. 간체기.	앙력 4월 파종
음력 3월~음력 4월	땅갈기, 파종, 씨래질, 김매기.	땅갈기, 파종, 씨래질, 김매기.*	씨래질. 억새발로 덮어습. 아침마다 물을 즘. 쇠이 나면 억새발을 걷음. 4월 쯤 저리면 옮겨 심 음. 3~4출기를 1포 기로 만들어 5포 간 격으로 심음. 비온 후에 정식. 흙이 질 물주기. 거름주기.	
음력 5월	5월에 수확, 전 제조. 하지 전후에 잎에 화열무늬가 난 것이 보이면 수 확.	5월에 수확, 전 제조. 하지 전후에 잎에 화열무늬가 난 것이 보이면 수 확.*.	지금 사람들을 앞에 5~6차례 뿌린 것이 두꺼워지기를 기다림. 지면에서 3 척(혹은 2척) 위 수확. 두전 제조.*.	5월 중 습기 있을 때 정식. 3출기를 보리를 거둔 후 (4~5월 경) 그 자리에 심음.
음력 6월				6월에 동참 심기. 동남은 새람입.
음력 7월		원뿌리에 거름물을 즘*.	7월 가두어 빼어 전을 만드.	
음력 8월	내용이 『신은지』 旋과 유사.	이전 제조 이후 삼천도 가능*.	내용이 『신은지』 藍과 유사.	내용이 『제민요술』 藍과 유사.

3-3 <표 3> 남(藍) 열색법

四庫全書

반하고 하루가 지나면 석회를 추가하여 더 교반하고 거품이 일면 천을 담가서 2~3일 동안 방치시키면 자감(紫紺)으로 염색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잿물대신 석회를 이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석회가 전(隕)을 만드는 데에만 이용되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이규경, 순조~철종연간/1959)에는 '석회가 적으면 무릇 전과는 다르게 된다(少石灰則迥異凡隕矣)'는 기록이 있는데, 이처럼 석회의 양이 적을 경우에는 침전하지 못하고 바로 염액으로 이용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잿물을 사용하든 석회를 사용하든 염액을 알칼리상태로 만들어 발효시키는 기본 원리는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경남 양산 통도사 서운암에서 행해지고 있는 남염법 역시 납즙의 잿물 발효염법이다.

2. 비한시적 남업법

비한시적 남염법이란 남의 생육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필요할 때 남염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I) 전(靛, 濱, 靑黛) 제조법 및 염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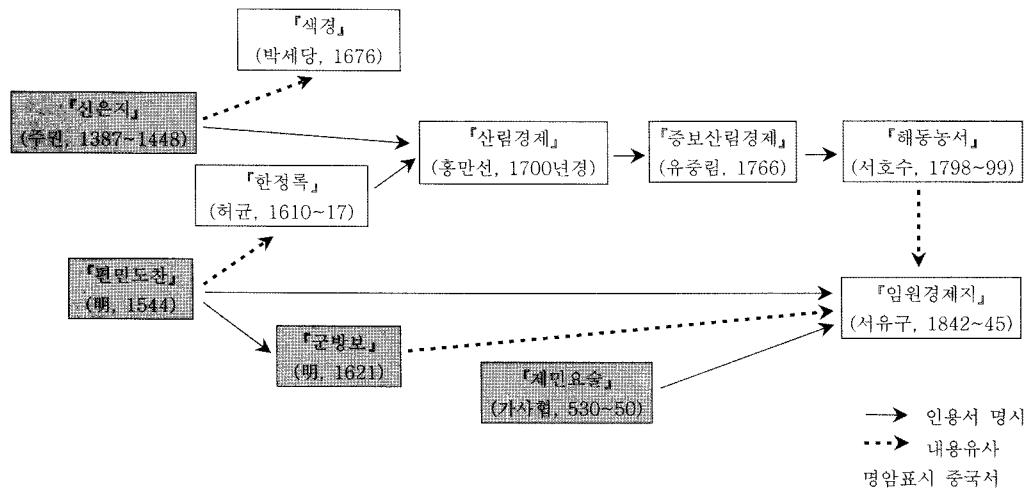
『색경』,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 『해동농서』, 『임원경제지』 등에 기록된 전 제조법을 <표 4>에 정리하였다. 전 제조법은 6세기 중국의 고농서인 『제민요술』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의 농학서에 기록된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며 오늘날까지도 그 기본과정은

변함이 없다. 과정을 대략 살펴보면 남 수화→1일~수 일간 물에 침지하여 남죽 만들기→석회(청색 磺灰 또는 蛤灰)를 넣고 교반하기→남 색소를 가라앉히고 위의 맑은 물을 버림→전 원성의 순서이다.

농학서에 인용된 문헌들의 편년과 내용을 비교해 보면, 조선의 전 제조기술의 발단은 중국에서 비롯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명시된 인용서나 내용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전 제조기록의 전후관계를 비교해 볼 때 <그림 1>과 같은 흐름이 파악된다.

한편, <표 4>를 보면 석회를 넣는 순서에 있어서 일부 농학서의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제민요술』과 『임원경제지』(『편민도찬』)에서는 ‘남을 벼어와 1~2일 물에 담가 두어 추출한 후에 그 남즙에 석회(광회)를 넣고 교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또한 오늘날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색경』,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 『임원경제지』(『군방보』에 인용된 『편민도찬』)에서는 ‘남과 석회를 물에 넣고 1일 침지한 후 교반한다’고 되어 있어 석회를 넣는 순서가 너무 이론 감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농학서의 편찬자들이 염색장인이 아닌 탓에 이전 기록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내용을 정리하거나 요약하면서 전후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류를 범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경상도, 전라도』(농상무성, 1906) 남 기록에 의하면 ‘제조는 생잎을 항아리에 넣어서 물을 가하고 발효를 시킨 후 석회를 가하고 침전시켜서 이른바 니람으로 만들어서 저장한다. 이에 열탕(熱湯)을 가하고 염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



<그림 1> 전 제조법의 인용 전후관계

<표 4> 전(靑) 제조법

기서 열탕도 그냥 맹물이 아니라 더운 잿물을 보고 관찰자가 열탕으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전을 염색에 이용하는 법은 기본적으로 남즙의 잿물 발효염법과 그 원리가 같다. 『오주연문장전산고』(이규경, 순조~철종연간)에는 전의 발효과정에 대하여 ‘큰 헝아리 하나면 좋은 소주 한 그릇을 넣는데 살아있고 맑은 것이 좋다... 만약에 소주가 없으면 좋은 꿀도 괜찮다. 순수한 청주가 없으면 순수한 탁주를 쓴다. 밀을 덮어 결과를 기다린다. 발효가 되어 성하게 되도록 노력 한다(若一大盃則取好澆酒一碗 好生清... 或無燒酒好蜜則好 醇清酒如無則強用醇濁酒 蓋麴煎果之 起酵勃然漲起之力)’는 기록이 있다. 통도사 서운암에서 행해지는 남즙의 잿물 발효염법에서는 염액의 발효를 돋기 위해 곡주를 넣고(박정상, 1998), 전남지역의 전 염색법에서도 물발 세우는 과정에서 쪽물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젖내기 술(막걸리)을 추가한다고 하여(전라남도농업기술원, 2000) 오늘 날에도 발효를 돋기 위해 균이 살아있는 술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개오기염법

전술한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규합총서』에는 겨울에 쪽잎이 없을 때 옥색을 물들이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온수에서 우려낸 갈매 개오기와 야청 개오기를 섞은 물에 백반을 조금 타서 염색하는 방법이다. 남염은 주로 여름에 행해졌으나 겨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개오기를 이용하여 옅은 푸른 색 계통의 색을 염색한 것이다.

IV. 조선후기 남염법의 변천

1. 숙람과 생람 혼합염법의 쇠퇴

『색경』 및 『산림경제』(『신은지』 인용)의 기록을 볼 때, 17세기에는 중국의 농학서 기록을 참고하여 숙람과 생람의 혼합염법을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색경』은 명 초기의 저서인 『신은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초록하고 있고 『산림경제』도 『신은지』를 인용하고 있어 과연 혼합염법이 조선의 실상인가에 의구심이 들지만, 『산림경제』의 ‘속방’에서 혼합염법을 소개하면서 생엽 염법과 비교하고 있어 17~18세기에 혼합염법이 조선에서 실제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표 3).

그러나 『산림경제』의 기록에 의하면, 1700년경 무

렵에 이미 혼합염법으로 얻은 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속방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혼합염법이 전부 생람으로 한 것보다 오히려 못하다’고 했으며, ‘얼음을 써야 남즙이 상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증보산림경제』에서도 『산림경제』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혼합염법의 부분이 축소되고 속방이 중점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해동농서』의 『증보산림경제』 인용 부분에서는 아예 숙람이 빠져있다. 또한 『죽교편람』에는 남을 익히는 대신 그냥 찔어서 즙을 취하고 거기에 생람을 1/3 비율로 넣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곧 생엽염법에 해당하는 것이다(표 3).

이상에서 볼 때, 『산림경제』가 편찬된 1700년경 무렵 이미 조선에서는 생엽염법 대비 혼합염법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얻지 못했으며, 18세기 이후 혼합염법이 점차 쇠퇴해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규합총서』에 초록을 염색하는 과정에서 숙람을 이용하는 법이 여전히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19세기에도 혼합염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규합총서』(빙허각 이씨, 1809/1975)에서 ‘초록은 ① 괴화나 삼뵈풀(조개풀)로 초염을 하고, ② 숙람과 생람을 1:1의 비율로 섞어 재염을 하여 얻는다. 이때 짙은 초록은 숙람과 생람의 재염(②과정)을 2회 실시하고 연한 초록은 1회 실시한다. 또한 으스러지게 짙은 초록은 숙남을 섞고, 소년의 춘유색 연초록은 숙남이 굽지 못하니 초염을 짙게 하고 생쪽 진국을 들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임원경제지』(서유구, 1842~45/1983)에서도 『천공개물』을 인용하여 황백과 소엽현람전수(小葉莧藍煎水)의 복합염색으로 草豆綠色을 얻는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에서는 17세기에 이미 숙람을 복합염색에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9세기에도 숙람염법이 시행되기는 했으나 그 용도는 남의 단일 염색이기보다는 주로 복합염색이었는데, 특히 원하는 색조에 따라서 숙람과 생람을 구분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2. 생엽염법의 발달

『산림경제』의 속방에는 ‘생람과 숙람을 2:1로 해도 전부 생람으로 한 것만 못하다’는 기록이 등장한다(표 3). 이로 볼 때 1700년 이전부터 조선에서는 이미 생엽염 기술이 있었으며, 이 기술력을 토대로 숙람과 생람의 혼합염법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18세기 말의 『해동농서』, 19세기의 『규합총서』, 『임

원경제지』,『죽교편람』에는 남의 생엽염법이 기록되어 있다(표 3). 19세기의 생엽염법은 이전 시기에 비해 기록이 구체적이고 염색법도 분화된 양상을 보인다. 하나는 생엽을 문지르거나 갈거나 으깨어 저온에서 염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엽과 물을 1:1로 넣고 찢어서 거른 줍과 그렇지 않은 생람을 3:1의 비율로 혼합하여 염색하는 것이다. 후자의 방식은『죽교편람』에 기록된 것인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그 염색법이 마치 숙람과 생람의 혼합염법을 설명하는 듯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혼합염법과의 뚜렷한 차이라 한다면 잎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찢는다고 표현한 점이다. 이는『죽교편람』의 편찬자가 전대의 농학서들을 인용하여 염색법을 기술하고 있긴 하지만, 숙람보다는 생엽염법이 보편화된 19세기 당시의 실상을 반영하여 수정 기록했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3. 남즙 잿물 발효염법의 지속

17~18세기 편찬된 농학서에서는 남즙의 잿물 발효염법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19세기『규합총서』의 반물 염색과『임원경제지』鴉青色 염색에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15세기 중반에 편찬된『산가요록』(전순의, 1459년경/2004) 아청색 염색법에도『임원경제지』의 아청색 염색법과 유사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남즙의 잿물 발효염법을 통해 남염의 짙은 색을 얻는 기술이 조선전기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표 3).

잿물 발효염법은 식물성 섬유에 염색하기 어렵고 반복염색에 의한 짙은 색을 얻기 어려운 생엽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잿물 발효염법 역시 쪽잎의 수확이 가능한 계절에 염색이 제한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규합총서』의 저자는 반물의 장단점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장점으로는 빛깔의 곱기가 청대 반물보다 낫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오래두지 못하고 쪽 있을 때만 들일 수 있다는 시간적 한계를 지적했다. 청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의 청대 반물은 곧 침전람(靛)을 잿물 발효시켜 얻은 짙은 푸른색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후기에는 한시적 염색법임에도 불구하고 잿물 발효염법으로 얻은 반물을 청대 반물보다 더 선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조선인의 색채 기호 및 염색의 용이성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0여 년간 쪽염을 해 온 김성동씨의 구술에 의하면 (2008년 3월), 생엽염법을 통해서는 남의 가장 맑고 깨끗한 색을 얻을 수 있고, 잿물 발효염법을 통해서는 순수하면서도 맑고 깨끗한 빛깔을, 니람 염색을 통해서는 진하면서도 맑고 깨끗한 빛깔을 얻을 수 있으며, 건람 염색으로는 맑고 깨끗한 색을 결코 얻을 수 없다고 한다. 색감의 차이를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규합총서』의 기록과 김성동씨의 구술에 근거한다면 조선인들은 곱고 순수하면서도 맑고 깨끗한 색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염색법은 먼저 전을 제조하여 이를 보관하고, 염색에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염액을 제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잿물 발효염법에 비해 과정이 복잡했다. 따라서 염색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잿물 발효염법이 더 행하기 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전 제조기술의 토착화

『색경』,『산림경제』,『증보산림경제』에 기록된 전 제조의 전반적 과정은『신은지』,『편민도찬』등에 기록된 중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표 4). 따라서 조선의 전 제조기술은 처음에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전 제조기술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점차 조선에 적합한 방식으로 토착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토착화의 혼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견되는데, 첫째는 사용된 석회의 종류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조선인이 추구한 전색(離色)이 중국의 것과 달랐다는 점이다.

『한정록』과『산림경제』의 기록을 볼 때, 17~18세기 조선에서는 전 제조시 광회(礦灰)를 침전 매개체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표 4). 광회는 질이 가장 좋은 석회를 말하는데, 중국에서도 전 제조시 침전 매개체로 이용되었던 것이다(송옹성, 1637/1997). 조선에서 이용된 광회는 중국에서 수입되었을 수도 있고, 한국의 풍부한 석회석 자원을 고려할 때 국내 생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18세기 말『해동농서』 이후의 농학서에는 침전 매개체로서 광회 대신 합회(蛤灰)가 기록되어 있다(표 4).『오주연문장전산고』(이규경, 순조~철종연간/1959)의 제전법에서도 ‘50근마다 석회 1근을 쓰는데 풍속에는 합회를 쓴다(每五十斤用石灰一斤 俗用蛤灰)’고 되어 있어『해동농서』의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천공개물』(송옹성, 1637/1997)에는 ‘온주, 대주, 복주, 광주 등지의 해안지방의 둘로 석회를 만-

들 수 없는 곳에서는 천연의 굴껍데기로 이를 대신한다 (凡溫台閩廣海濱石不堪灰者則天生蠣蠣以代之)고 되어 있고, 여회(蠣灰)를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어 중국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광회 대신에 여회를 이용하여 패분을 만들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이규경, 순조~철종연간/1959)에는 ‘지금 아동의 제전은 경성, 호서 부여, 해서 해주, 서벽 평양에서 나온 전색이 매우 선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통의 전색이다. 중원에서는 복건의 것이 최고이고 당읍의 산물도 이름답다(今我東製醴 以京城及湖西扶余海西海州西閔平壤所出靛色甚鮮 其余皆平常靛色中原則福建者為上 棠邑產者亦佳)’고 하여 조선과 중국의 유명한 전 제조지역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조선에서는 문화와 기술의 중심으로서 도성인 경성과 평양을 제외하고는, 호서의 부여, 해서의 해주가 언급되어 있다. 부여와 해주의 특성은 모두 큰 강을 끼고 있거나 해안 지역이면서 조선의 양대 도성인 경성과 평양에 각각 인접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합회 사용의 용이성 및 물류의 용이성 등과 관련된 지리적 조건이 전제조의 발달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보통의 전색’이라 한 것을 볼 때, 경성, 부여, 해주,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도 전 제조를 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토지농산보고-경상도, 전라도』(농상무성, 1906)에 나람의 제조와 염색에 관한 기록이 있으므로, 20세기 초까지 만해도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에서 전 제조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전 제조기술도 전라남도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조선후기 광회(17~18세기)에서 합회(19세기)로의 이행은 재료 구입의 용이성, 공정과정의 용이성 등에 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석회석은 산출 광산과 생활지역이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 이 크지만, 조개껍질은 바닷가에 사는 어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큰 덩어리로 존재하는 암석보다는 날개로 존재하는 조개껍질이 다루기에 용이했을 것이다.

한편, 『오주연문장전산고』(이규경, 순조~철종연간/1959)에는 조선의 전색(靛色)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전은 속명 청대이다. 전이 매우 귀하고 그 색이 특별히 곱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선의 남전색이다(靛俗名青黛 雛甚稀 而其色尤艷 云此是我東藍靛色也)’라고 하여 조선의 전색이 무척 아름다움을 언급하고 있다. 앞서 『규합총서』(빙허각이씨, 1809/1975) 기록대

로 반물과 같은 색감을 선호한 조선인들이었기에 전색(즉 청대 반물)에 있어서도 반물과 같이 고운 색을 추구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기술력을 키워갔을 가능성을 생각해 한다.

V. 결 론

이 연구는 조선후기(17~19세기)에 편찬된 농학서에 등장하는 남염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 조선후기의 남염법을 고찰하고 조선후기 남염법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후기 남 품종으로는 요람과 숭람이 있었다. 요람 중에서는 특히 잎이 둥글고 두터운 당람이 선호되었고, 이는 현재 토종쪽으로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잎이 배추와 유사한 숭람은 1900년 초반까지도 재배되고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조선후기 남 재배법은 요람의 경우, 대체로 음력 3월 파종→5월 정식→7월 수확→8월 채종의 순으로 오늘날과 유사하다. 숭람은 요람과 파종시기가 비슷하나 요람에 비해 베는 시기가 빨랐으며 일반적으로 두 번 혹은 세 번까지도 수확하여 전 제조에 이용할 수 있었다.

셋째, 조선후기의 남염법은 크게 한시적 남염법과 비한시적 남염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한시적 남염법에는 숙람과 생람의 혼합염법, 생염염법, 남즙의 잣물 발효염법이 있었으며, 비한시적 남염법에는 전 염색법과 개오기 염색법이 있었다.

넷째, 조선후기 남염법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결과, 숙람과 생람 혼합염법의 쇠퇴, 생염염법의 발달, 남즙 잣물 발효염법의 지속, 전 제조기술의 토착화와 같은 네 가지 특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천의 과정은 조선인들이 맑고 깨끗하면서도 순수한 색을 얻기 위해 남염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웃음을 짐작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이는 곧 오늘날 남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 쪽빛이 어떤 색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여겨진다.

참고문헌

김지희. (1997). 우리의 색 재현을 위한 전통염색. 전통염색 공예. 서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박정상. (1998). *쪽풀들이기*. 서울: 태학원.
- 이영노. (2006). *새로운 한국식물도감 I*. 서울: 교학사.
- 영농기술정보(쪽). (2000, 12).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료검색일 2008, 3, 1. 자료출처 <http://www.jares.go.kr>
- 조경래. (2007). *규합총서에 나타난 전통염색법 해설*(증보판). 파주: 한국학술정보.
- 賈思勰. (530~50). *齊民要術*. 농촌진흥청 역주 (2006). 수원: 농촌진흥청.
- 農商務省. (1906).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京畿道, 忠淸道, 江原道*. 東京: 農商務省.
- 農商務省. (1906).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慶尙道, 全羅道, 東京*. 農商務省.
- 朴世堂. (1676). *續經* 농촌진흥청 역 (2001). 수원: 농촌진흥청.
- 憑虛閣 李氏. (1809). *규합총서*. 정양원 역주 (1975). 서울: 보진재.
- 徐有榘. (1842~45). *林園經濟志*. 보경문화사 영인 (1983). 서울: 보경문화사.
- 徐浩修. (1798~99). *海東農書*. 한국학문현연구소 영인 (1981). 서울: 아세아문화사.
- 宋應星. (1637). *天工開物*. 최주 주역 (1997). 서울: 전통문화

사.

- 安宗洙. (1885). *農政新編*. 농촌진흥청 역 (2002). 수원: 농촌진흥청.
- 元世祖勅司農司. (1273). *農桑輯要*. 叢書集成初編 영인 (1985). 北京: 中華書局.
- 柳重臨. (1766). *增補山林經濟*. 농촌진흥청 역 (2003). 수원: 농촌진흥청.
- 李圭景. (순조~철종연간). *五洲衍文長箋散稿*. 동국문화사 영인 (1959). 서울: 동국문화사.
- 二如亭群芳譜. (1621). 四庫全書存目叢書補編 編纂委員會 영인 (2001). 济南: 齊魯書社.
- 全循義. (1459년경). *山家要錄*. 농촌진흥청 역 (2004). 수원: 농촌진흥청.
- 崔景錫. (1884년경). *試驗場各種目錄*. 서울: 규장각소장 마이크로필름.
- 許筠. (1610~17). *閑情錄*. 김영진 역 (1984). 조선시대 전기농 서.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洪萬選. (1700년경). *山林經濟*. 민족문화추진회 역 (1982). 서울: 민족문화추진회.